파리 문화의 新걸작 - 루브르박물관 유리 피라미드

- 돌과 유리와 철의 조화, 문화유산 재창조로 과거와 현대의 상생 도모 -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의 관람객은 매년 600만명에이른다. 가보지않았어도누구나 이름은 알고 있는 루브르박물관은 에펠탑, 개선문, 샹제리제 거리 등과 함께 파리를 생각할 때 함께 떠오르는 파리의 명소이다.

루브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시품은 세계 최대 규모이다. 박물관으로사용하고있는루브르궁전도800년간증축되어 온 역사속의 유산이다. 루브르궁전은 1793년부터박물관으로사용되기시작하였는데, 프랑스혁명을 통해 공공 전시공간으로 변모하게 된 것으로 역사적 의미도깊다. 박물관의규모와역사, 소장하고 있는 전시품 등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서루브르박물관을소개할것이많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루브르박물관을 더 빛나게 하는 현대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유리 피라미드는 루브르박물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루브르박물관을 단지 유물과 미술품이 전시된 박물관으로뿐만아니라파리의문화를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루브르궁전은 12세기 요새로 건축되었다가, 14세기 들어서는 궁전으로 수리되었다. 그후여러왕들에의해증축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은 나폴레옹3세 때 완성된것이다.

1980년대 들어서는 소장품의 전시 및 보관 공간이 부족해지는 등 박물관 사용에 불편이 커졌고, 박물관의 개선을 위해 ‘ 그랑 루브르(Grand Luvre) ’ 계획이 세워졌다. 1983년시작된이사업은1993년 끝났고, 루브르박물관의 방문객은 2배로 늘어났다. 그랑 루브르 계획의 핵심은 부족했던 전시 공간과 작품 수장고,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박물관 기반시설이 확보되었고, 관람 동선이 개선되는 등 박물관이 현대화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박물관 중앙에 새로운출입구인유리피라미드가세워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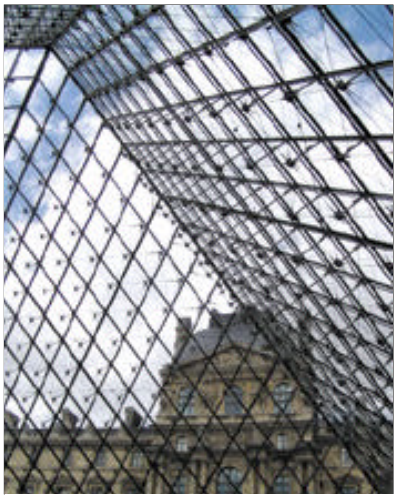
거센 반대 무릅쓴 유리 피라미드

루브르박물관중앙의나폴레옹광장한복판에는 유리와 철재로 만들어진 유리 피라미드가 서 있다. I.M.페이가 설계한 이유리피라미드의계획은발표되자마자 많은논란을일으켰다.

파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인의 90%가 반대했고, 박물관 앞에서는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언론은 ‘ 칠판 위의 손톱 ,’‘ 사회주의자들의 무덤 ’등으로 혹평

했다. 당시 사람들이 유난스럽게 보이기도하나, 경복궁안에유리피라미드를세우려는계획이 있다고 하면 필자 역시아연실색할 것이다. 세계적 문화유산인 루브르궁전에현대시설물을세운다는것만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계획은문화에 대한 강한자부심을 가진 프랑스에서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 형상인 피라미드를 세우는 것이었으며, 이를설계한건축가도중국계미국인이었던것이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추진되었다. 그랑 루브르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재임시 추진한 대형 국가 프로젝트인 ‘ 그랑 프로제(Grand Projects) ’ 가운데 하나였다. 미테랑 대통령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의예술 및 문화 시설을 늘리고자 하였다. 루브르박물관을 비롯하여 라데팡스의 新개선문, 오르세미술관, 라빌레트공원등이건설되었으며, 뛰어난 현대 건축가들이 역량을 발휘하는무대가되었다.



유리피라미드.

新걸작… 유리와 철과 돌의 조화

결과적으로 유리 피라미드는 루브르의 유명 수집품들만큼이나 걸작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투명 유리와 철재로 만들어진 현대적 피라미드는 석조의 루브르궁전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유리와철재, 석조건축물은대조속에서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유리 피라미드는 3개의작은유리피라미드와분수로둘러싸여 있는데, 분수와 조명으로 어우러진 박물관에는 문을 닫는 시간에도 야경을 보기위한관광객들이방문한다.

루브르궁전의 훼손을 최소화했다는 것은 유리 피라미드의 탁월한 점 중 하나이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인 피라미드는루브르궁전으로향하는시야를최소한으로 가리고 있다. 특수 제작되어 일반 유리보다 더 맑고 투명한 피라미드의 유리는 막힘없이 루브르를 보여준다. 루브르궁전의 모습은 유리 피라미드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더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유리 피라미드는 과거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루브르박물관에 현대적인 이미지를보태고있다.

자연광의 지하 통로

길을잃기쉬운루브르에서관람객들은 유리 피라미드로 방향을 찾는다. 루브르박물관의 외부 측면에 있던 기존 입구는

루브르궁전야경.

박물관입구.

유리 피라미드로 옮겨졌다. 유리 피라미드는 'ㄷ차 형태를 하고 있는 루브르박물관의중앙광장에자리잡고있다. 박물관 동선이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관람객들은 중앙의 유리 피라미드를 통해 동쪽(슐리관), 남쪽(드농관), 북쪽(리슐리외관)의각전시실로이동할수있게되었다.

유리피라미드는단순히박물관의입구를 알리는 조형물이 아니다. 유리 피라미드는기능상으로도뛰어나다. 피라미드는 부피에 비해 넓은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유리 피라미드는 이넓은평면을통해지하 공간에 자연광을 전달한다. 유리피라미드의 채광으로 지하의 홀은 쾌적한 공간이 되었다. 피라미드의 지하에는 카페, 레스토랑, 서점, 강당 등 관람객을 위한 공간들이마련되어있다.

지하 홀에서는 역(逆)피라미드를 찾아봐야 한다. 역피라미드는지상의 유리 피라미드와 연결되어 있는데, 바닥에서1미터이상떨어져 마치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보인다. 바닥에는다시돌로된피라미드가맞닿을듯이있고, 유리를통해들어온 빛은 무지개 스펙트럼으로 신비한 분위기를만들어낸다.

박물관지하홀.

루브르 성공 - 과거와 현재의 win - win

루브르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파리의 상징물이 되었다. '문화유산을있는 그대로 보존할 것인가, 새롭게재창조할것인가'라는선택하기어려운문제에서루브르박물관의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많은 유산을소유하고있는것은부러운일이다. 문화를 누리며 문화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것도부럽다. 하지만가장부러운것은 옛유산을누리는것에서그치지않고, 후대에 물려줄 20세기의 유산들을 만들어가고있다는것이다.

글을 쓰다 보니 유리 피라미드가 보고 싶어졌지만, 루브르박물관에다시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쯤 생길지 모르겠다. 그래서파리에가지않고루브르박물관과 유리 피라미드를 감상하는 쉬운 방법을 찾았다.

베스트셀러 소설인 『다빈치코드』에서 루브르박물관은주요배경으로등장한다. 루브르박물관은 소설 속 살인 사건의 장소이며, 역피라미드 아래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 루브르박물관과 유리 피라미드를감상하기위해영화'다빈치코드'를 보는것도괜찮은방법이될듯하다.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원
sungyk@cerik.re.kr